



9월 세계 반도체 판매 3% 하락 전망

지난 9월 한달 동안 세계 반도체 판매 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장조사기관인 헨델스방켄캐피털 자료를 인용해 EE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시장조사기관은 “일반적으로 9월이 반도체 판매에 성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실적”이라며 “앞으로 소비자 가전용 칩 시장이나 유무선 통신 칩 시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도체산업연합회(SIA)는 지난 8월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가 182억달러를 기록, 당초 예상치인 180억달러를 상회했으며 이는 2003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2%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SIA는 이번 주 중 9월 세계 반도체 판매 실적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가트너, 2005년은 스마트폰 시대

스마트폰이 내년부터 기업에서 필수적인 모바일 기기가 될 것이라고 가트너의 최근 조사 결과를 인용해 EE타임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트너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스마트폰 사용이 대폭 늘어나게 되며 각 기업체들은 스마트폰을 다루는 능력으로 직원들을 평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트너는 2006년이 되면 2,000만대의 스마트폰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돼 1,300만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PDA를 판매 수량에서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모든 산업 분야에서

무선 이메일 활용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2008년까지 80%의 직원이 무선 이메일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트너는 이러한 분석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기업체의 직원들이 하루 동안 받는 이메일 중 평균 10분의 1 정도가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성격을 띤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직원들의 즉각적인 이메일 응답은 조직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대 DVD 규격의 통일화는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가트너 올 세계 PC 판매 전망 하향

가트너가 올 4분기와 올해 전세계 PC 판매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C넷에 따르면 가트너는 올해 전세계 PC 판매량에 대해 “당초 13%를 예상했지만 이보다 못미치는 11%(1억8,270만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작년 동기 보다 10% 증가한 5,190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트너는 크리스마스 등 연말 성수기를 맞아 컴퓨터 보다 평면 패널 TV나 다른 전자제품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측하면서 “3분기에도 가정용 PC 판매량이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같은 부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키아, 내년에 휴대폰 신기종 20개 이상 쏟아낸다

노키아가 내년에 신제품을 대거

투입해 점유율 회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지아이신문이 보도했다.

노키아는 3일 모나코에서 열린 전시회를 통해 내년 이후 신제품 전략을 소개하며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를 장착한 모델 등 20개 이상의 휴대폰을 새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노키아가 신제품을 대거 출시키로 한 것은 올해 주력 기종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휴대폰 부문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키아는 약 100만 화소급 ‘메가픽셀’ 기종을 대거 출시해 소니에릭슨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 등 이 분야에서 선행하는 유럽 및 일본업체들을 추격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요르마 회장은 “올해 디지털카메라폰의 판매가 2억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델, 최신행 프린터 출시



델이 중국 베이징에서 최신행 프린터를 출시했다. 지난 3분기 전세계 컴퓨터 시장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7% 성장한 가운데 델은 16.8%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르네사스, TV 해상도 4배 이상 높이는 반도체 회로 개발

르네사스테크놀로지가 간단한 연산처리로 TV영상의 해상도를 기존보다 4배 이상 높일 수 있는 반도체 회로를 개발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보도했다.

르네사스가 개발한 'PXG-4'는 특수관수를 사용해 근접하는 화소 신호를 연산하는 것만으로 화소 수를 교정하는 구조로, 이에 따라 방대한 화소 정보를 처리하는 기존 방법보다 회로 규모 및 칩 가격을 3분의 1정도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지금까지 해상도를 높이는 화소 교정 방법은 근접하는 화소뿐만 아니라 주변의 화소 신호도 연산해야만 해 원활한 파형을 재생하는 것이 어려웠다. PXG-4는 '폴엔시관수'로 불리는 영상 해상도 표시 주파수를 자연스런 형태로 끌어올리는 관수를 사용해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화소를 늘릴 수 있다.

이 기술은 니가타정밀이 지난 해도오타자동유기, 쓰쿠바대학 등과 공동 개발했지만 화소 교정이 수평 방향으로만 가능해 2배 이상의 해상도가 한계였다.

르네사스는 영상 소프트웨어(SW) 등을 분석해 새로운 연산식을 개발, 회로에 집적했다.

르네사스는 이 기술을 자사 영상 신호처리용 반도체에 집적할 계획인데 우선 내년 1분기에 개당 1,500엔 정도 실험 생산하고 여름부터 양산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간 500만개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쓰시타전기산업, 중국서 HDTV 시험방송

마쓰시타전기가 중국에서 CATV 망을 이용한 HDTV 시험방송을 개시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쓰시타는 최근 중국업체와 공동 설립한 합작사를 통해 HDTV 시험방송을 개시했다. 오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전까지는 HDTV 본방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마쓰시타의 HDTV 시험방송은 비록 중국의 방송 규격이 일본과 다르지만 타 업체보다 한발 앞서 진출함으로써 향후 HDTV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마쓰시타는 북경영신동방정보기술과 각각 49%, 51%의 지분을 출자한 합작사를 광둥성에 설립했다. 광둥성 현지 방송국과 제휴해 일단 이 지역에서의 HDTV 시험 방송을 개시했다.

마쓰시타는 중국이 빠르면 내년 HDTV 본방송을 개시할 것으로 보고 주사선 수 등 구체적인 표준규격이 정해지는대로 HDTV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둥성과 상하이에 TV공장도 설립했다.

한편 중국 TV 수요는 일본시장의 약 3배 이상인 연 3,000만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산요전기, 유럽 3G 시장 진출

일본의 산요전기가 유럽 3세대(3G) 휴대폰 시장에 진출한다.

니혼게이지신문에 따르면 산요전기는 프랑스 이동통신 사업자인 오렌지가 연내 개시하는 3G 서비스에 자사 휴대폰을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렌지의 서비스 지역인 영국, 프랑스를 대상으로 2G 규격인 'GSM' 방식과 3G 규격인 'UMTS' 방식 겸용 휴대폰을 출하할 예정이다.

산요는 내수시장에서 KDDI·보다폰, 미국시장에선 스프린트 등 이동사업자에 단말기를 공급해 왔지만 유럽 시장에 공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산요는 5,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보다폰에 이어 오렌지와 제휴함으로써 공급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오렌지에 공급키로 한 휴대폰은 초박형 제품으로 100만 화소급 디지털 카메라가 부착된 고부가가치 제품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제조는 당분간 일본 공장에서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일본보다 3G 도입이 늦지만 영국 허치슨3G UK가 이미 서비스를 개시한 상태이며 보다폰도 조만간 단말기를 출시하는 등 서비스 보급 움직임이 활발하다. 산요전기는 2005년 유럽의 3G 휴대폰 시장 규모가 1,5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샤프, 업계 최초 DVB-H 튜너 출시

샤프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유럽이 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일렉트로니카 쇼'에서 업계 최초로 고속, 저전력 기능을 강화한 유럽식 DVB-H 프론트엔드 튜너 모듈을 발



표했다고 EE타임스가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샤프가 설계하고 제조하는 이 모바일 TV튜너 칩은 SiGe 프로세서 기반 칩 생산에 일본 업체들이 뛰어 드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샤프는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IC 팩을 최근 개조하는 등 이 시장 진출을 준비해 왔다. 또 일본의 ISDB-T1 사양이 유럽의 DVB-H 표준과 유사해 이같은 시장 진출이 비교적 용이했다는 평가다.

샤프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유럽의 맥시밀리언 후버 사장은 "ISDB-T1과 DVB-H 표준은 약 10%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ISDB-T1 기술을 활용해 DVB-H 모듈을 만드는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모듈은 내년 봄 선보일 예정이며, 자동차 및 휴대폰 등 휴대용 기기에 사용될 전망이다. 이미 핀란드에서 DVB-H 현장시험을 진행 중이다.

후버 사장은 "앞으로 큰 시장을 형성할 DVB-H 분야에 조기 진입해 이 시장 톱3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샤프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세계 디지털TV 시장 2008년 4배 급성장

세계 디지털TV 시장이 2008년에 올해보다 4배 가량 성장한 8,660만대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인 아이서플라이는 세계 디지털TV 시장이 오는 2008년까지 매년 44.5%의 성장률을 기록, 올해 예상치인 1,990만대 규모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EE타임스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매출 규모로는 올해 314억달러에

서 2008년 628억달러로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07년까지 모든 TV에 디지털 튜너를 탑재, 방송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디지털TV 시장성장에 고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LCD, PDP, LCOS, DLP 등 TV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디지털TV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TV로의 전환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은 북미로 올해 전체의 약 43% 가량이 디지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과 일본이 뒤를 이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TV에 사용되는 반도체 시장이 올해 13억달러에서 2008년 49억달러로 성장하는 등 동반상승할 전망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세 둔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9월 세계 반도체 매출액이 184억1천만달러로 작년 9월보다 27.4% 증가했다고 1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는 지난 1월의 26.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휴대전화와 PC 수요의 둔화와 재고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매출에 비해서는 1% 증가했으며 지역별 매출을 보면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각각 4.1%, 1.6% 증가한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1.7%, 0.5% 감소했다. 올해 9월까지 세계 반도체 매출액은 1576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33.2% 증가했다.

분기별로 보면 3분기 미국의 칩

판매 증가율은 0.9%이며 유럽과 일본은 각각 7.2%와 3.2%로 나타났다.

소니 700만 화소 디지털카메라



소니가 700만화소의 디지털카메라인 '사이버샷 DSC-V3'을 선보였다.

소니, 유럽 평판TV 시장서 잘나간다

소니가 유럽 시장에서 밀려드는 평판TV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로이터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업체인 소니가 유럽에서 평판TV 조립라인이 충분히 가동되지 못해 급증하는 소비자들의 주문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는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앞두고 나타난 현상이어서 소니 관계자들을 애태우고 있다.

소니 유럽 법인의 크리스 비어링 사장은 "지난 9월말까지 6개월간 소니 유럽법인의 판매가 5% 늘어났다"며 "이는 평판TV 판매의 성장률을 뛰어넘는 굉장한 일"이라고 말했다.

소니는 9월말 유럽에서 시장점유

을 15.8%를 차지, 유럽 TV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라이벌 필립스를 압박하고 있다.

“인텔 반도체시장 1위 수성”

IC인사이드가 발표한 올해 반도체 업계 톱10 랭킹에 따르면 인텔이 300억달러 매출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자와 TI가 각각 159억달러,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가 108억달러를 판매 2,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위는 94억달러의 매출을 올린 르네사스로 집계됐다.

이들 상위 4개사는 지난해 순위를 그대로 유지해 탄탄한 기반을 입증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 7위를 차지했던 인피니언이 5위로 올라선 점이 눈에 띈다.

또 순수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76억달러의 매출로 세계 반도체 시장 8위를 차지했다. TSMC를 제외하면 필립스가 전체 반도체 시장 10위로 기록된다.

2004년 상위 10개 반도체 기업의 판매량은 2003년 대비 24% 상승했으며 전체 반도체 시장은 28% 성장할 것으로 IC인사이드는 예상했다. 인텔은 올해 매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상위 10개 가운데 성장률이 11%로 가장 낮다.

IC인사이드는 그러나 D램 분야에선 삼성과 인피니언의 급성장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은 D램과 플래시메모리 분야에서 선전으로 전년 대비 53% 성장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였으며 인피니언도 35%나 매출이 늘었다.

인텔, PC게임 컴퓨터용 펜티엄4 프로세서 출시

인텔이 PC게임 등을 위한 고성능 컴퓨터용 ‘펜티엄4EE’ 칩세트를 출시했다.

이 칩세트는 3.46GHz의 클럭스피드로 이전 제품에 비해 빨라졌으며 이전 제품에 비해 CPU와 시스템 메모리 성능이 33%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의 가격은 999달러로 인텔의 가장 강력한 펜티엄4 가격(417달러)에 비해 2배 이상 고가다. 경쟁 제품인 AMD의 애슬론64 FX-55의 가격은 827달러다.

파이어니아, 2007년까지 PDP TV 50% 증산

파이어니아가 오는 2007년까지 PDP TV 생산량을 현재보다 50% 늘릴 것이라고 니혼게이지신문이 보도했다.

파이어니아는 PDP TV를 중점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연 50만대 전후의 생산능력을 갖춘 최첨단 공장을 착공하고 이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2007년에는 현 생산량에 비해 약 50% 증가한 연 160만대 생산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공장에는 화소 발광효율을 높일수 있는 최신 기술 등을 도입해 LCD TV 등과 경쟁할 수 있는 40~60인치대의 대화면 제품을 중점 생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파이어니아는 내년 초부터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 팀을 발족, 구체적인 공장 착공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PDP TV 시장이

연 5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점과 공장 착공으로부터 실제 가동까지 걸리는 기간이 1~2년 정도임을 감안해 연초 착공에 들어갈 것이 유력 시되고 있다.

신공장 부지는 아직 미정이며 투자금은 270억엔~300억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파이어니아는 NEC로부터 PDP 사업을 인수한데 이어 지난 달에는 자회사인 파이어니아디스플레이프로덕트의 야마나시공장에서 4번째 라인을 가동시켰다. 이 결과 기존 연 30만대였던 생산능력이 110만대로 증가한 상태다.

파이어니아는 2007년 PDP TV 세계시장 규모를 800만대로 보고 현재의 점유율 15%대를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필립스, 10여년만에 PC사업 재개

세계적 전자업체인 필립스가 10여년 만에 개인용컴퓨터(PC) 사업을 재개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필립스전자는 영국·아일랜드·스페인·이탈리아·노르웨이 등 유럽 6개국에서 이번 주 PC판매를 개시했다. 이로써 필립스는 누적되는 적자를 견디지 못해 지난 1990년대 초 PC사업을 접은 이래 10여년 만에 다시 PC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이번 PC 판매는 영국 유통업체 덕슨과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필립스 대변인은 “이들 6개국의 성과를 봐서 다른 나라에도 PC를 판매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기



위해 PC를 다시 판매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세계 PC 시장이 디지털 가전의 부상으로 점차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필립스가 PC사업을 재개한 것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IBM, 슈퍼컴 속도경쟁 1위 탈환할 듯

IBM이 슈퍼컴퓨터 속도 경쟁에서 1위를 탈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에너지부는 IBM의 슈퍼컴퓨터 '블루진/L'의 성능을 표준 시험 SW로 측정한 결과 초당 70,72트릴리온의 연산속도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2002년 6월 이후 세계 컴퓨터 톱500 리스트에서 1위를 기록해온 일본 NEC의 슈퍼컴퓨터 '어스 시뮬레이터(Earth Simulator)'의

연산속도를 뛰어넘는 것이다.

어스 시뮬레이터는 같은 시험 SW로 측정한 결과 초당 35,86트릴리온의 연산속도를 기록했다. 세계 톱 컴퓨터의 공식 리스트는 오는 9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IDC "한국 정보화 세계8위"

시장조사기관인 IDC가 실시한 '2004 세계 정보화지수(ISI: Information Society Index)' 조사에서 한국이 세계 8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 4계단 상승했다.

전세계 5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덴마크가 963점을 기록해 958점을 얻은 스웨덴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한국 보다 점수가 높은

나라는 미국(938점), 스위스(929점), 캐나다(925점), 네덜란드(919점), 핀란드(911점) 등이었다. 노르웨이(899점)와 영국(870점)도 한국에 이어 9, 10위를 차지하며 10위권에 들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홍콩이 11위, 호주가 12위를 차지했으며 일본과 대만은 각각 18위와 20위에 그쳤다. 조사 대상국 중 하위권에 랭크된 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터키 등이었다.

IDC의 한 관계자는 ISI에 대해 "컴퓨터, 인터넷, 통신, 사회적 요소 등 4가지 정보화 지표와 이와 관련된 15개 이상 변수들을 조사한다"면서 "국가별 정보접속 및 정보 이용과 가공 등 정보기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